

【 해외금융 뉴스: 유럽 】

영국 3/4분기 GDP, 예상 밖의 성장세 시현

□ 영국의 3/4분기 실질 GDP가 예상보다 높은 0.8%(전분기대비)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경기 침체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불식됨과 동시에 재정적자 축소를 위한 정부 계획의 추진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임.

- 영국의 3/4분기 실질 GDP는 2/4분기의 1.2%의 증가에 비해 다소 성장속도는 둔화되었지만, 전분기대비 0.8% 증가함으로써 경제전문가들의 예측치인 0.4%의 성장을 상회함.
 - 실질 GDP의 75% 이상을 차지하는 서비스업이 0.6% 증가하여 전반적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견인하였으며 건설업의 4.0% 증가도 성장에 일조한 것으로 나타남.
- GDP 발표 이후 S&P는 영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변경하였고, 주가지수는 크게 상승한 반면, 국채는 투자자에게 안전자산으로 평가 받으면서 수익률이 급등하고 채권가격이 급락함.
- 최근 수주일 동안 소비체감지수와 주택경기에 대한 통계가 기대치에 미달하면서 경기진작을 위한 양적통화확대가 단행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예상 밖의 3/4분기 성장에 따라 양적통화확대 가능성도 줄어든 것으로 평가됨.
- 또한 2~3년에 걸친 재정지출 감소를 통해 11%대에 달하는 재정적자를 해소하겠다는 현 정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.

□ 한편, 야당인 노동당은 현재의 경기를 위협하는 요인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긴축재정은 경기침체를 다시 불러올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힘.

- 야당은 가계의 부채조정, 부가가치세 증액,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규제 증가, 수출회복세 둔화 등은 경기회복에 위협요인이 된다고 지적함.
- 이에 대해 정부는 파운드의 약세는 결국 수출 증가로 이어지며 실업률도 미국(9.6%)이나 다른 유로지역(10%)에 비해 7.7%로 낮기 때문에 소비지출의 감소가 큰 문제가 될 것이 없으므로 경기침체 재발 가능성은 낮다고 주장함.

* IMF는 최근 GDP 대비 1%의 재정적자 감소는 향후 2년간 GDP를 0.5% 저하시킬 수 있다고 발표하였으며 노동당은 이를 인용하여 1,274억 달러의 재정적자 감소는 약 6%의 GDP를 저하시킬 수 있다고 주장함.

(영국통계청 10/26, Financial Times 10/26)